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6.27.(화) 제23-072호

◆ [Focus]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국민 방문 주요 결과 및 현지 반응

◆ [What's News]

- (디커플링) 미중 무역 통계로 나타난 디커플링 현상
- (입법동향) 美 민주당 하원, 미국 노동자 및 무역 경쟁력 법안 발의
- (USMCA) USTR, USMCA 노동분쟁 해결절차 지원 위한 FAQ 게시
- (미중관계) 옐런 재무장관, 7월 중국 방문(블룸버그)
- (전기차) 백악관, 미국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노력
- (제조업) 'Invest in America' 미 제조업 투자 붐

◆ [Top Headlines]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외교통상) 모디 인도 총리의 미국 국민 방문 주요 결과 및 현지 반응

□ 모디 인도 총리, 4일간의 미 국민 방문 진행(6.21-24)

- 미-인도, 공급망부터 기술, 안보까지 다방면 협력 추진
 - 반도체 공급망부터 AI 및 양자컴퓨팅 기술 협력, 항공·우주산업 협력, 차세대 이동통신(6G) 등 iCET*의 중점 분야 협력에 더해
 - * Initiative on Critical Emerging Technology
 - 인도-태평양 등 역내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적 현안에 대한 양 국가의 협력 강화를 시사
 - 아울러 예측을 뒤엎고 양 국가 간 6건의 WTO 분쟁 종료 전격 합의
 - * 현지 언론은 존 커비의 발언(6.20)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 합의 없을 것으로 전망해왔음
-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성과 역시 거둔 방문으로 평가
 -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모디 총리의 의회 연설은 인도가 중국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마이크론의 인도 투자 외에도 인도 기업도 태양광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발표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둠

□ 미-인도 정상회담 주요 결과

< 미-인도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요약 >

연번	분야	주요 내용
1	미래를 위한 기술 협력 (A Technology Partnership for the Fu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론의 인도 투자 등 반도체 공급망 강화 • 인도의 핵심광물 파트너십(MSP) 참여 • 민관 협력 TF 등 6G를 비롯한 차세대 통신규격 협력 • NASA-ISRO 공동 프로그램 등 우주 개발 협력 • 양자, AI 및 첨단 컴퓨팅 관련 협력 • 양국 과학부처간 협력 등 첨단기술 연구 협력 • 혁신을 위한 양국 스타트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 • 인도 기업의 미국 투자 등 광케이블 투자
2	차세대 국방 협력 (Next-Generation Defense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 전투기 엔진의 인도 내 생산 추진 • 인도의 미국 정찰감시용 무인 비행드론 구입 추진 • 인도 조선소와 미 해군간 함정유지보수 계약 체결 • 인도군 연락장교 파견, 국방물자 공급망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협력 • 국방기술 혁신 진흥을 위한 INDUS-X 출범 및 공동의 방위산업 협력 로드맵 도출
3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동 번영 (Shared Prosperity and Delivering for our Peo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취업비자에 대한 미국 내 갱신 시범 프로그램 운영 • 양 국간 영사관 설치 확대 • 장학 프로그램 확대 등 대학·학생 교류 증진 • 농업, 에너지, 보건, 기술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 대학간 연구 협력 확대 • 인도의 보잉 여객기 구입, 보잉의 인도 내 파일럿 육성 인프라 투자 및 지원/부품 물류센터 건립 등 항공산업 협력 • 6건의 WTO 무역분쟁 해소 등 양국 무역관계 강화
4	국제무대 선도 (Leading on the Global S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이 각각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 참여 • 인도양 지역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채널 출범 • 인신매매, 식량안보, 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국제 협력 포럼 개최 •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선출 지원, 11월 APEC 회의 초청 등 인도의 국제무대 영향력 제고 지원 • 신흥국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개발 협력체 출범 • 피지 의료인 육성을 위한 삼국 협력
5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보건 협력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 및 수소 산업 개발 등 에너지 협력 • 인도의 미국 청정산업 인프라에 투자 • 인도 내 녹색기술 투자를 장려하는 플랫폼 출범 협력 • 버스, 철도 등 인도 대중교통 분야 탄소감축 협력 • 압과 당뇨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협력 •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협력

[자료] 백악관(6.22)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국 간 상호 투자
 - 미국 마이크론社(USD 8억)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社(USD 4억)가 인도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시설에 투자
 - 그 외 인도 녹색기술 투자 플랫폼 출범, 인도産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인도의 청정산업 육성을 지원
 - 인도에서도 엠실론 카본社(USD 6.5억)가 미국 내 인조 흑연 양극재 공장 투자를 발표한 데 이어 VSK 에너지社(태양광, USD 15억)와 JSW 스틸社(해양풍력, USD 1.2억)도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투자
 - 그 외 국방물자나 API 등 필수 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
- 국방 분야 비롯 첨단기술 분야 협력
 - GE F414 엔진의 인도 내 라이선스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인도의 차세대 경형 전투기 개발을 지원하는 등 양국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 보잉의 인도 투자, 미 해군의 조선소 정비 계약 등으로 인도를 역내 주요 군용 장비 정비 거점으로 활용 및 육성
 - 오픈랜 등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기술 개발,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원자력 분야 협력, 양자 컴퓨팅 및 AI 기술 교류 등 추진
 - * 미 국가과학재단(NSF)-인도 과학기술부의 35개 연구협력 프로젝트 발표, 인도 에너지부의 페르미 가속기 연구소에의 재정기여(USD 1.4억) 등
- 통상 및 국제 관계 협력 추진
 - 미 232조 관세에 대응하여 부과한 인도의 보복관세 철회, 양국이 상호 WTO에 제소한 6건의 분쟁을 종료
 - 트럼프 행정부 시절 회수되었던 인도의 일반특혜관세(GSP) 권리 재부여 등에 대해서 검토
 -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인도양 협의체 외 쿼드, I2U2* 등을 통해 지역 내 현안 관련 협력 및 선도
 - * 인도(India), 이스라엘(Israel), 미국(USA), 아랍에미리트(UAE) 간 외교협력체
 - 아울러 모디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국가명 언급은 없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압과 대결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발언하는 등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시각을 공유
 - * 단,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 규탄 없이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닌 대화와 민주주의 시대”로 “우리는 유혈사태와 인류의 고통을 종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발언

□ 현지 반응

- 예측을 뒤엎은 WTO 분쟁 상호 종료
 - 지난 1월의 양국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빈 방문에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해왔음
 - 특히 CSIS는 최근 몇 년간 WTO 등 현 국제무역 체제에서 인도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들며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평가
 - * CSIS는 인도가 보복관세를 철회하였지만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유지된 것으로 보아 미국이 통상에서는 좀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갔다고 평가
- 중국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위한 양 국가의 “타협”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인도 내 무슬림 공동체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모디 총리의 연설을 보이콧
 - * 이들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인권을 희생하면 안된다”고 규탄
 - 포린폴리시는 이번 인도 총리의 국빈 방문을 두고 중국이라는 위협을 앞에 두고 양국 모두 민주주의(미국)와 비동맹주의(인도)라는 이상을 조금씩 타협한 것으로 평가
 - NYT는 모디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도가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면서도,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
- 무기 판매 관련 달라진 미국의 입장
 - 이번 전투기 엔진 기술 이전을 일부 언론은 호주(원자력잠수함), 일본(토마호크 미사일)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인-태 지역의 동맹국과의 협력방법이 바뀐 것으로 분석
 - 인도는 그동안 소련·러시아제 무기체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상황으로 이번 정상 방문을 계기로 의존도가 낮아질지 주목
 - * 단, 인도와 러시아간 주요 기술 분야 협력이 오래되어 단기간 내 전환은 난망할 것으로 전망
 - 한 편, 미 의회는 인도에의 무기 판매 절차 간소화 법안을 발의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 백악관(6.22), NYT(6.22), CSIS(6.26), ForeignPolicy(6.21), 폴리τικο(6.22) 등

□ (디커플링) 미중 무역 통계로 나타난 디커플링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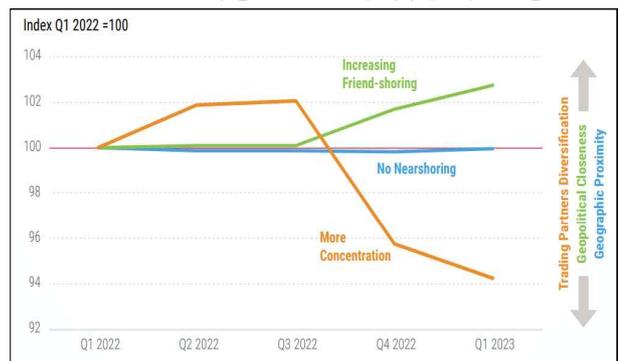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6.21)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제 상품·서비스 교역은 작년 하반기 감소세에서 반등 성공
 - 美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무역 의존(Trade Dependencies) 관계의 변화가 가속화 중 분석
- 특히, 미중 간 상호 무역 의존도가 축소하는 디커플링 현상 여실
 - 최근 4개 분기('22.2분기~'23.1분기) 동안 미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 축소했고, 중국의 대미 의존도 역시 0.9% 축소
 - * 동 기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1.9% 감소 평가
- 2022년 하반기 들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추세 확인
 - 인접국 간 교역이 증가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효과는 미미했으나, 정치적 친소관계에 따른 교역 증감 추세 뚜렷
 - 주요 교역국끼리 무역이 증가하는 집중화 급진행, 다각화는 후퇴

< 미중 무역 의존도 추세 ('21.Q1~'23.Q2) >



[자료] UNCTAD

< 프렌드쇼어링 및 교역 집중화 현상 >



[자료] UNCTAD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 Inside Trade(6.26), UNCTAD(6.21)

□ [입법동향] 美 민주당 하원, 미국 노동자 및 무역 경쟁력 법안 발의

○ (개요) 하원, GSP, TAA, MTB 재승인 신규 법안 제출

- 하원 민주당이 6월 현재 GSP(일반특혜관세제도), TAA(무역조정지원제도), MTB(기타수입관세철폐법인) 재승인 및 갱신하고 '미국 노동자 및 무역 경쟁력 법안'(American Worker and Trade Competitive Act)을 제출함

- * GSP :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 * TAA : 외국과의 무역으로 불리하게 손해를 입은 노동자, 농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 * MTB :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특정 품목에 대해 임시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제도

○ (상세) 신규 법안, 미국의 경쟁력 증진 및 세계 노동자 지원 목표

- GSP와 MTB 효력이 2020년 말 만료되어 개발도상국 대상 관세율이 인상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임시 관세 면제를 청원할 수 있는 제도가 종료됨
- 세입 위원회 무역 소위원장 얼 블루머나워(Earl Blumenauer)가 발의한 이 법안은 GSP를 2026년까지 재승인하고 만료 기간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할 예정이며, MTB는 2024년 말까지 승인된 수입품에 대해 관세 면제 및 감면 허용 예정

○ (전망) 양당이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세부 합의에 난항 예상

- 민주당은 GSP 혜택 조건으로 엄격한 환경·노동·인권 규정을 요구하나, 공화당은 까다로운 조건이 수혜 범위를 제한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한유림

■ 자료원 | InsideTrade(6.23), 블루머나워 의원실(6월)

□ (USMCA) USTR, USMCA 노동분쟁 해결절차 지원 위한 FAQ 게시

- (개요) 美 무역대표부(USTR), 북미무역협정 노동분쟁 집행절차 FAQ 게시
 -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무역협정(USMCA) 내 노동분쟁 해결절차 지원을 위해 (A) 핫라인과 (B) 청원 절차로 구분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게시
 - USMCA는 올 7월 3주년을 맞이할 예정으로 최근 멕시코 내 광산 관련 노동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USTR이 FAQ를 발표해 관심
 - * 미국은 공식적으로 11번의 신속대응메커니즘(RRM)을 발동
- (상세) 핫라인과 청원으로 구분해 상세 정보 제공, 노동분쟁 해결 노력 계속
 - (A) 핫라인: 익명(기밀) 웹 기반 제보를 위한 온라인 청원 창구로, 노동 분쟁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 노동 전문가가 투입되어 검토 (<https://www.dol.gov/agencies/ilab/our-work/trade/labor-rights-usmca/hotline>)
 - * '22년 12월 기준,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204개로 미국 정부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 자체 신속메커니즘(self-initiated RRM action)을 발동한 바 있음.
 - (B) 청원: 노동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서면 진술로, 미국 정부의 감독 및 집행 위해 기관 간 노동위원회(Interagency Labour Committee for Monitoring and Enforcement)에 제출 (USMCA-petitions@dol.gov로 이메일 발송으로 제출)
 - FAQ에서 노동 문제는 노동 조합, 단체 교섭,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차별, 임금, 초과 근무, 안전 및 건강 등 관련 문제를 지칭한다고 명시
- (기타) 금주 발표된 USTR 신규 지침에 따르면 노동 청원도 익명 제보 가능
 - 조지타운대학교의 캐슬린 클라우센(Kathleen Claussen)은 이번 지침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노동 청원 역시 익명 제보가 가능해진 점을 지목
 - 다만, 기존 핫라인도 익명 제보가 가능해 차별성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언급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USTR(6.26), 인사이드트레이드(6.26)

□ (미중관계) 엘런 재무장관, 7월 중국 방문(블룸버그)

- (개요) 미 재무장관 7월 베이징 방문, 대중투자규제 행정명령 준비 막바지
 - 블룸버그 통신의 내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7월 초, 엘런 재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첫 고위급 경제 회담을 가질 전망
 -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관련 투자 규제 및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이 빠르면 7월 말 발표 전망
- (상세) 중국 허 리펑 부총리와 회동, 대중규제 행정명령은 최종 작업 중
 - 지난 3월 부임한 중국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허 리펑(He Lifeng) 부총리와 재닛 엘런 재무부 장관 간 회동이 7월 초 이루어질 전망
 -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 간 준비한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기술 관련 대중투자 규제 행정명령'이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관측
 - 이에 대해 미국의 행정부는 엘런의 중국 방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중규제 행정명령 발표 일정 역시 미정이라고 언급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박소현
■ 자료원	블룸버그(6.27)

□ [전기차] 백악관, 미국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노력

- NREL, 미국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보고서 공개(6.27)
 - 2030년, 약 3,300만대의 플러그인 전기차량을 유지하려면 약 2,800만 개의 충전기 필요, 이중 약 120만 개는 공공 충전 인프라로 구성
 - * 이중 20만개는 급속 충전기로, 100만대는 업무·주거지구용 완속 충전기로 설치
 - '30년까지 공공 충전 인프라에 310억-550억 달러 투자 필요, '23.3월 기준 237억 달러의 투자가 발표되어 목표 달성 가능 전망
-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
 - 인프라법 예산 중 75억 달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편성, 이 중 50억 달러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 설치에 투자
 - * 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
 - 공공자금이 투입된 전기차 충전기에 표준을 적용, CCS와 더불어 NACS* 규격 커넥터도 제공 검토
 - *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 규격
 - 아울러 기존 충전 인프라 개수에도 약 1억 달러의 예산 투입
- SAE, NACS 커넥터의 공공 표준 규격으로 채택 추진(6.27)
 - SAE는 간소화된 절차로 NACS 규격의 표준 채택을 추진 중으로 이는 장비 공급 업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 소비자 후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발표
 - 한 편 포드와 GM을 필두로 리비안, 볼보 등이 NACS 규격을 채택할 것으로 최근에 발표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백악관(6.27), 폴리티코(6.27)

□ [제조업] ‘Invest in America’ 미 제조업 투자 붐

- (개요) 재무부, 미국 내 제조시설에 대한 건설 지출 급증 분석 보도
 - 인프라법(IIJ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등 정책 입법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 관련 혜택 제공에 실제 제조시설의 건설 투자·지출 비용이 2021년 말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
- (상세) △컴퓨터·전자전기 분야, △비주거 건설시설 지출, △국제적 맥락에서 주목
 - 제조시설 급증은 주로 컴퓨터, 전자 및 전기 제조시설 건설이 주도하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 추세로 분석
 - 미국 비주거용 건설 지출 또한 다른 유형 건설 지출과 더불어 폭넓게 증가 중
 - 다른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미국의 독특한 현상으로 기술

<미국 총 제조시설 건설 투자지출>



[자료: 재무부 보도자료]

<인프라법 이후 건설지출 변화 추이>



[자료: 재무부 보도자료]

-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첨단 제조 및 근로자 등 미국 경제의 생산 능력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 측면의 경제(modern supply side economics)”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

- | | |
|-------|--------------------|
|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 ■ 자료원 | 재무부(6.27)(‘22.9.8) |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Ford to Lay Off at Least 1,00 Contract, Salaried Workers (포드, 최소 1,000명의 계약직 및 정규직 노동자 정리해고 예정)
	포드는 작년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정리해고 진행. 이번 정리해고는 엔지니어급 화이트 컬러 대상. 전기차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 중
The Washington Post	Lordstown Motors files for bankruptcy and sues Foxconn (로드타운 모터스, 파산 신청 및 폭스콘 고소 진행)
	로드타운 모터스는 전기트럭 생산을 위해 2021년 폭스콘과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이행했다고 주장. 이번 파산은 신규 기업의 전기차 시장 진입이 어려움을 반증
The New York Times	Supreme Court Rejects Theory That Would Have Transformed American Elections (미 대법원, 미국 선거 지형을 바꿀 이론을 기각)
	연방 대법원은 6-3으로 “독립 주 입법부 이론”을 기각. 해당 해석을 따르면 주 의회는 연방 선거에 대해 거의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됨.
CNN	US home prices continued to rebound in April (미국 주택 가격, 4월에도 상승세 유지)
	4월 미 주택 가격은 3월 대비 약 0.5% 상승하여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주택담보 금리는 높지만, 현재 주택매물이 없어 실수요자 대상으로 가격 상승세.
USA Today	Kevin McCarthy says he doesn't 'know' if Donal Trump is 'strongest' Republican to take on Joe Biden (매카시 하원의장, “도널드 트럼프가 최선의 후보인지 알 수 없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2024 대선에서 바이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트럼프가 최선의 공화당 후보인지는 알 수 없다 밝힘

* 미국 동부시간 6월 27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 · 통상 일정

6.27(화)	5월 내구재 주문건수(Durable-goods orders)
6.28(수)	5월 도매업 보고서(Advanced wholesale inventories)
6.29(목)	6월 4주차 실업수당 신규건수(Initial jobless claims)
6.30(금)	5월 소비지출가격(PCE) 지수(PCE index)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18	RE100,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	2023.06월
US23-17	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6월
US23-16	美 화석연료 발전소 배출기준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5월
US23-15	6가지 통계로 보는 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및 시사점	2023.05월
US23-14	미국 반도체 R&D 지원 정책 방향	2023.04월
US23-13	미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3.04월
US23-12	미국 EV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및 현지 기관 정책 제안	2023.04월
US23-11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	2023.03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해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13 (2023.6.26)		
코인시-12 (2023.5.31)		